

〈권두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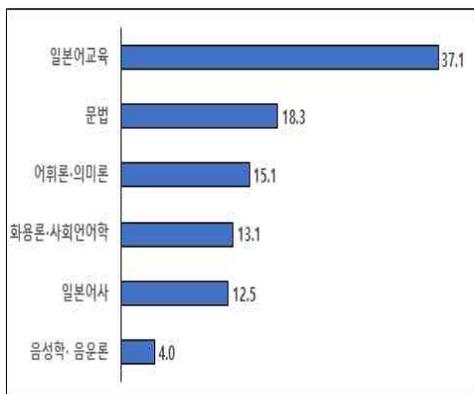
한국 일본어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이은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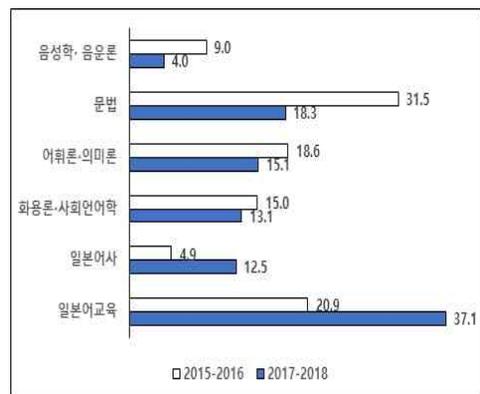
(편집위원장/명지대)

한국일본어학회에서는 『日本語學研究』 발간 50집을 기념하고 한국의 일본어학 연구 동향을 국내외로 발신한다는 취지하에 2017년 『日本語學研究』 51집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분야별 최신 현황과 전망〉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59집은 그 두 번째로 ①음성학·음운론(酒井真弓 교수님/덕성여대) ②문법(이경수 교수님/한국방송통신대) ③어휘론·의미론(강경완 교수님/대구가톨릭대) ④화용론·사회언어학(홍민표 교수님/계명대) ⑤일본어사(박효경 교수님/한양사이버대), ⑥일본어교육(조남성 교수님/한밭대), 등 일본어학 6개 분야의 국내 최고전문가 교수님들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집필진 교수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게재된 6개 분야의 현황과 전망 논문은 집필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2년간(2017.1.1. - 2018.12.31) 한국연구재단의 18개 등재(후보)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체 논문 수는 842편으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어교육이 312편(3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문법 154편(18.3%), 어휘론·의미론 127편(15.1%), 화용론·사회언어학 110편(13.1%), 일본어사 105편(12.5%), 음성학·음운론 34편(4.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2016년의 연구동향과 유사하게 일본어교육, 문법, 어휘론·의미론 등 상위 3개 분야의 논문이 전체의 약 7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년에 비해 문법 분야 연구가 감소하고, 일본어교육 분야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림1〉 최근 2년 간(2017년-2018년) 한국 일본어학 연구의분야별 논문 비중(%)



〈그림2〉 2015년-2016년과 2017년-2018년의 한국 일본어학 연구의분야별 논문 비중(%)

한편 분야별 연구의 특징이나 문제점, 제언 등을 요약해 보면, 우선 음성학·음운론 분야는 연구자 층이 두텁지 못하여 관련 논문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구테마가 음성교육 등 특정 분야에 치우친 점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데, 향후 관련 분야 연구자의 육성과 대규모 한국인 학습자의 음성 DB 작성, 연구 성과를 음성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음성교육의 새로운 교수요목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법연구는 과거에 비해서 논문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내용과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일본어교육문법이라는 새로운 연구형태와 방법론이 한국에서도 도입될 것이라는 지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어휘론·의미론 분야에서는 최근 2년 간의 어휘연구의 특징으로 어지(語誌), 유의어나 오노매토피어의 의미변화에 관한 통시적 연구, 문화를 반영하는 어휘와 미디어를 경유하여 사회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어휘의 모습에 관한 사회문화적 연구, 유의어의 구별법과 콜로케이션 추출법, 멀티미디어 코퍼스의 일본어교육에의 응용 등의 코퍼스어휘연구가 활황을 띤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화용론·사회언어학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공동연구나 대조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 들어 배우자간의 호칭이나 언어사용을 양성 불평등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나 언어 경관이나 댓글 분석, 입력언어(얼굴문자, 그림문자, 휴대전화 메시지, 채팅, SNS 등)의 분석 등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향후 화용론·사회언어학 분야의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어교육 분야의 경우, 관련 연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수·학습관련 연구가 1/3 정도로 가장 많은데, 통제된 조건에서의 실험적 연구에서 실제 일본어 교수·학습에 맞는 연구로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 비중은 적지만, 실용적인 언어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한 연구(비즈니스 경어, 일본(어)에 대한 상호이해, 말하기 및 대화 능력 평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어사 분야의 경우, 논문 수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대상이 한국어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의 언어교류와 영향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어사 연구의 국제화, 다각화는 향후 일본어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 및 연구 활성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현황과 전망 논문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회장단과 본지 편집위원으로서 이번 현황과 전망 논문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본 학술지의 영문요지 번역 및 감수를 해주시는 호주국립대학(ANU)의 이덕영 교수님, 실무를 담당해 주신 박효경 교수님, 그리고 평소 학술지 편집 업무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신은진, 김의영, 강미선 편집이사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학회의 이와 같은 노력이 국내외의 일본어학 연구자 및 후학들의 연구 활동 및 연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 3. 10)